

자식 위한 어머니의 애끓는 호소



▲ 사진= Sathiyam tv 화면 캡처

인도의 한 여성이 자녀들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든 장기를 팔겠다고 나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2일 Sathiyam tv(sathiyam.tv)에 따르면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에 사는 44세 여성 산티는 얼마 전 “(심장 포함) 모든 장기를 팝니다.” 라는 풋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 여성에 따르면 가족 중 유일하게 생계를 책임졌던 장남이 지난해 7월 불의의 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셋째 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직장을 잃었고, 넷째인 11세 된 딸 역시 교통사고로 신경질환을 앓고 있다. 막내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 나이다.

이 여성은 막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 헤어진 후 생계를 책임졌지만,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딸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뒀다. 이후 첫째 아들이 생계를 도맡았지만, 역시 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산티는 “우리는 현재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고 다섯 아이 중 세 아이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일을 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200만 루피(약 3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장기를 팔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지역 정부는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족을 우선 보호소로 옮겼고, 이후 아픈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악어 눈 찌르고 목숨 건진 남성

몸길이가 2.5m에 달하는 악어에게 다리를 물린 61세 남성이 손가락으로 악어 눈을 손가락을 찌르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 존슨 씨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어가 포획돼 악어농장으로 이송됐다(왼쪽). 존슨 씨가 악어 공격을 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wptv 화면 캡처

지난 17일 WPTV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세인트루시에 사는 마크 존슨 씨는 나흘 전인 13일 오전 9시30분쯤 집 근처 운하 옆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다. 그는 물속에서 악어 한 마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봤지만, 그리 경계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단 한번도 악어의 습격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심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악어의 공격을 받았다. 악어는 그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다리를 빼보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왼손의 검지와 중지로 악어의 한쪽 눈을 강하게 찌렀다. 눈을 찌른 악어는 물고 있던 그의 다리를 놓고 곧장 물속으로 헤엄쳐 달아났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약 70m 떨어진 집까지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며 걸어간 후 곧장 차를 타고 집 근처 의료센터에서

다리 상처 봉합하는데 62바늘, 악어 눈을 찌를 때 다친 왼손 검지 5바늘을 꿰맸다.

존슨 씨는 “포획 전문가로부터 내가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는 손가락으로 악어 눈을 찌르는 방법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존슨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악어를 포획해 악어 농장으로 옮겼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13만 달러?

쓰레기가 가득 담긴 비닐 봉투 5개가 경매에서 13만 1,000달러에 팔렸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예술가로 활동해온 개빈 터크(53)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영국 현대미술의 부흥기를 주도한 일군의 영국 작가를 일컫는 ‘yBa’ (young British artists)의 일원으로, 그의 작품은 지금도 세계 예술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의 작품들에는 ‘덤프’ (Dump)나 ‘트래시’ (Trash)라는 이름까지 붙어있어 진짜 쓰레기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있는데 놀라운 점은 이들 작품의 가격이다. 평균 4만6,000파운드(약 5만 9,000달러) 수준의 낙찰가가 형성돼 있고 경매에서는 최소 2만 파운드 이상의 최저 낙찰 가격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쓰레기봉투 5개를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작품은 2016년 뉴욕에서 열렸던 한 경매에서 무려 13만1000달러라는 거액에 낙찰됐다.

사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쓰레기봉투가 아니다. 겉모습은 쓰레기봉투이지만 사실은 청동으로 주조한 작품이다. 그는 2000년 이후 20년째 작업 중인 ‘트롬프뢰유’ (trompe-



▲ 개빈 터크(왼쪽)와 그의 작품. 사진=Wikipedia, avinturk.com

l'oeil)라는 실제와 착각할 만큼 정밀하게 묘사하는 기법을 이용한 청동 주조품으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영국 왕립예술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한 터크는 1991년 졸업전으로, 텅빈 스튜디오 공간에 ‘개빈 터크/조각가/여기서 작업하다 1989-1991’ 이라고 쓴 기념패만 설치했다가 보수적인 교내 분위기에 밀려 학위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로 미술계의 시선을 끌었고 1997년 거물 컬렉터 찰스 사치가 기획해 30만 관객을 동원한 ‘센세이션’ 전에 참여하면서 yBa의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